

그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979년 산림공직자로 산림청에 발을 들여 놓은 지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30년의 세월을 돌이켜 보면, 황폐한 산지에 나무를 심으며 국토녹화의 꿈을 키우던 시절부터 성공적으로 녹화한 산림을 사회, 경제, 문화, 생태적으로 잠재가치 높은 국가자원으로 육성해 오기까지 지난 30년은 국가의 녹색 희망을 키워온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되겠다는 학창시절의 꿈을 착실히 실천해온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산림은 세계도 인정할 만큼 성공적으로 녹화되었고 국민을 위한 대표적 휴양공간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가장 자연친화적인 생활환경 요소로까지 자리 잡았습니다. 나아가 기후온난화라는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의 희망으로 부각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청 조직 내부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조직의 안정과 밝은 미래비전을 가지고 국민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소리 소문 없이 따뜻한 애정과 도움의 손길을 아낌없이 주셨던 임업계 여러 선배님들과 사회 원로 분들의 은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성과가 있기까지 지난 30년 세월을 여러 선배님들과 원로 분들을 모시고 함께 일할 수 있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이제 산림청의 발전된 모습과 밝은 미래를 보며 산림 공직자로서, 산림청장으로서 지난 30년의 시간을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아쉬운 작별의 순간이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편안하기도 합니다. 이 순간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 뵙고 인사를 올리는 것이 도리인 줄 알고 있으나 여건상 이렇게 남아 인사를 대신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시간을 두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의 애정과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하시고 맥내 두루 평안함을 기원드립니다.

2008. 3. 6

전 산림청장 서 승 진